

구차(龜茲)의 服飾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용문

目 次

I. 序 言	V. 韓國服飾과의 關係
II. 文化的 背景	1. 龜茲服飾과 韓國服飾
III. 壁畫에 나타난 服飾	2. 胡人像의 服飾
1. 키질(克孜爾)石窟의 服飾	3. 신라의 寶劍과 金銅履
2. 쿤트라(庫木吐拉)石窟의 服飾	4. 興德王 服飾禁制
3. 키질가하(克孜爾朵哈)石窟의 服飾	VI. 結 言
IV. 文獻에 나타난 服飾	參考文獻
1. 男子의 服飾	ABSTRACT
2. 女子의 服飾	

I. 序 言

服飾과 인간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服飾의 형태와 재료, 색채 등은 시대적·환경적인 특징을 선명히 보여준다. 服飾은 역시 하나의 문화현상이므로 服飾을 통하여 경제, 정치제도, 사회풍속, 미적관념, 민족적인 전통을 알 수 있다.

93년 여름 한달동안 중국의 新疆과 甘肅지방을 답사하면서 실크로드의 服飾과 韓國服飾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中國의 新疆石窟調査는 주로 龜茲지방 즉, 키질과 쿤트라 지역의石窟研究가 중점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龜茲服飾은 韓國服飾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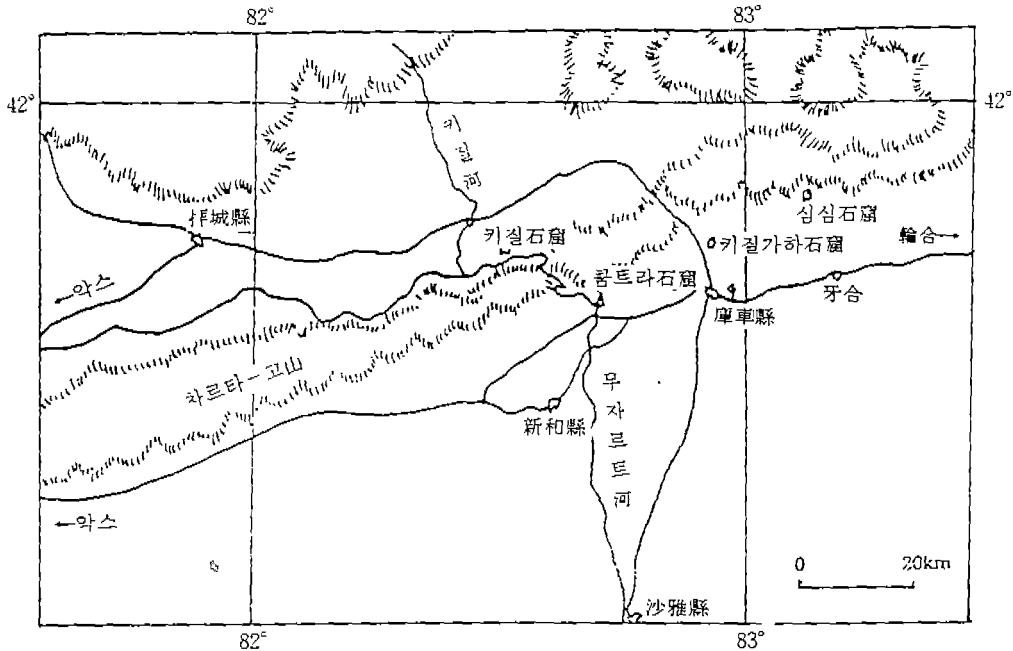
연구목적은 龜茲의 壁畫에 나타난 供養人의 服飾을 연구함으로써 韓國服飾과의 관계를 고찰하며 文化的 東西交流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龜茲의 키질·쿤트라·키질가하 千佛洞에 그려진 壁畫를 踏査研究하였고, 中國 正史를 비롯한 文獻과 壁畫圖錄集, 論文 등을 참고로 한다.

연구범위는 龜茲地域을 중심으로, 龜茲가 記錄에 나오는 B.C. 2세기부터 멸망하는 8세기까지를 다루며, 壁畫資料는 5~7세기를 중심으로 다룬다. 龜茲의 石窟 分布圖는 다음과 같다(圖 1). 服飾研究에 있어서 供養人의 服飾은 당시의 진정한 服飾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研究資料이므로 본 論文에서는 壁畫에 그려진 供養人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II. 文化的 背景

중앙아시아는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 동서남북



(圖 1) 쿠차의石窟 分布圖
「クムトラ石窟」, P.170.

의 문화교류의 중심지였던 것만이 아니고, 기마유목민족과 오아시스의 농경민족이 어떤 때는 共存 共榮하며 어떤 때는 약탈과 투쟁을 행하였던 곳이기도 했다.

현재 이 지역은 투르키스탄(Turk系 주민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서투르키스탄은 파미르와 경계를 이룬 소련령 중앙아시아를 말하며, 동투르키스탄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천산 산맥, 남으로는 곤륜 산맥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고대로부터 여러 오아시스 국가가 번영하였던 곳이다. B.C. 2~A.D. 3세기에 西域北道와 南道上에는 여러 오아시스가 작은 국가형태로 존재하였다. 西域北道는 카슈가르(Kashgar, 疏勒), 악수(Aksu, 阿克蘇), 쿠차(Kucha, 龜茲), 카라샤르(Karashar, 焉耆), 투르판(Turfan, 高昌)에 이르는 길이며 南道는 야르칸트(Yarkand,

焉耆), 호탄(Khotan, 和田), 니야(Niya, 尼雅), 체르첸(Cercen, 且末)을 통해 미란(Miran)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중국의 위진남북조시기에 해당하는 4~5세기는 세계사적으로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 시기로 세계적인 격동의 시기이다. 정치·군사적 분열의 시기인 3~6세기 동안은, 중국의 영향이 중앙아시아에 미치지 못하여 쿠차를 비롯한 서역제국은 大오아시스 국가를 중심으로 발력을 형성하여 발달한 시기이다. 그러나 8세기말 吐蕃의 침략으로 그 지배하에 놓인 후, 9세기 중엽에는 투르크계 위구르인이 天山山脈 이북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西域은 「漢書」에 “동서 6천여리, 남북은 천여리로 동방은 漢제국에 접하고 境界는 玉門關과 陽關이다. 서방은 葱嶺으로써 한계를 하고 있다.”¹⁾고

1) 「前漢書」卷96上 西域 第66上

“西域以孝武時始通本三十六國其後稍分更……東西六千餘里南北千餘里東則接漢殷以玉門陽關西則限以葱嶺”

기록 되어있다. 원래 황하이서의 모든 유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漢代이후에는 천산산맥과 곤륜산맥으로 둘러싸인 타림분지를 칭하게 되었다.

흔히 중국의 서역진출은 장건의 서역파견(B.C. 139~126)을 그 효시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殷代(B.C. 1766~1123)에 이미 서역남도의 호탄에서 산출되는 옥을 사용하고 있었다. 타림분지 오아시스와 황하 사이의 河西(오늘날의 감숙성)라고 불리는 곳은 띠모양의 반사막지대로 중국의 서역진출 통로였다. 漢代에는 돈황을 비롯한 河西四郡을 두고, 唐代에는 투르판 지역에 安西都護府를 두었으며 끝이어 카라샤르와 쿠차도 복속시켰다.

쿠차는 중국 新疆위구르自治區, 타림盆地에 있는 중요한 오아시스로 투르판에서 서쪽으로 1,050Km 떨어져 있고, 쿠차에서 카슈가르까지는 960Km의 거리이므로 西域北道の 중간지점이다. 天山山脈의 中部南麓 龜茲川과 무자르트(Muzart)川 사이에 비옥한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곡물과 야채, 과일 등의 산출이 풍부하여 옛날부터 독립된 입장을 가지며 번영했다. 中國史書에서 이름 높은 龜茲國이다. 屈支, 屈茨, 邱茲, 丘茲라고도 불리우지만, 이는 모두 쿠치(Kuči)의 음譯이다. 龜茲의 북쪽에 있는 天山에는 각종의 鑛物이 풍부하여 이것들의 채집에 의한 鑛業의 융성은 龜茲國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西域北道の 요충지로서 무역의 중심이 되어 번영하였던 것이다. 古代의 주민은 아리아種에 속하고 언어는 인도 유럽語系로 이타로셀틱(Italo-celtic)에 가까우며 龜茲語로 불려진다.

B.C. 2세기 漢의 기록에 나타난 이래 西域北道の 대표국으로 南道の 于闐과 같이 중시되었다. 특히 小乘佛敎의 발달로 키질 등의 벽화에는 주로 이란풍의 고도 수법을 전하고 있다. 658년 이래 唐의 安西都護府가 설치되었다.²⁾

옛부터 白氏라고 하는 왕가가 계속 통치하고 있었다. 백씨의 불교정책에 따라 쿠차의 주변에는 콤트라(Kum-tra), 키질(Kizil), 수바시(Subasi), 심심(Sim-sim), 아치일락(Acigh-Ilak), 키리슈(Kiris) 등의 동굴 사원이 있어서 수많은 이란풍의 향기 짙은 壁畫와 塑像이 그린베델(Grünwedel)과 르·콥(Le coq)에 의해 전래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그 풍부한 내용과 양식으로 불교 미술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³⁾

「唐書」 輿服志에, 唐의 開元年間(A.D. 713~741) 이후에는 胡帽, 胡服, 胡履이 유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복은 쿠차와 투르판 주변에서 발견된 불교벽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남녀 모두 소매가 작고 옷깃을 접은 翻領의 襦와 袴를 입고 있다. 여자는 긴 치마, 남자는 바지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자의 화장법도 두드러지게 서역풍이 가미되었다. 여자들도 堆髻모양으로 높이 땀은 머리 카락에 입술은 검게, 붉은 血暈粧이라 하여 燕支를 반원 또는 원으로 칠하고 눈에는 軍持靛(Lapislazuli)과 남색(Indigofera tinctoria)의 아이샤도우를 칠했다.

“胡人”이란 고대 중국인이 사용한 塞外人의 汎稱으로 「史記」, 「漢書」 등에서 볼 수 있는 胡人は 오로지 북방의 匈奴를 가리켜 사용되고 있었지만, 魏晉이후 西域諸國人을 가리키게 되고, 隋唐時代가 되면 突厥, 回鶻 등 北狄은 물론 타림분지, 서아시아의 이란系 인종도 모두 胡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唐代에는 특히 이란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⁴⁾

龜茲는 古代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세계의 대문명-회합的, 페르시아의, 인도의, 중국의인 문화상이 혼합 되어있다.⁵⁾

唐代에 쿠차에서 활약한 高仙芝(?~755)장군

2) 平凡社(1986), 「アジア歴史事典」, 3, pp.51~52.

3) 나가사와 가즈도시, 이재성(譯)(1990), 「실크로드의 민족과 문화」, (서울: 민족사), p.75.

4) 平凡社(1986), 前掲書, p.388.

5) 「新疆風物志」(1988), (烏魯木齊: 人民出版社), p.134.

은 고구려 유민 高句麗의 아들로 태어났다. 「資治通鑑」에 의하면 “카르 룩(Qurluk Turks)의 배반으로 高仙芝는 대패하여 병사의 대부분은 전사하였다.”고 기록 되어있다. 747년 安西都護府의 부도호로서 서역과 티베트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하여 카라코람 산맥을 넘어 소발률국(小勃律國, 현재의 길기트)까지 원정하여 대공을 세웠다. 750년 安西節度使가 되어 龜茲에서 石國(타쉬켄트)으로 공격해 들어가 그 왕을 포로로 하였기 때문에, 소그디아나의 諸國은 압바스朝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51년에는 탈라스(Talas) 강변에서 唐과 아랍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졌으나 唐軍의 대 패배로 끝나고 받았다.⁶⁾

8세기 쿠차를 중심으로 활약한 高句麗人 高仙芝 장군 이외에도, 쿠차와 한국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맺어져 있었다. 고구려 고분의 천정양식과 문양, 비파·공후 등의 악기와 龜茲樂은 한국의 고대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세기초, 열강의 탐험대들이 쿠차의 문화재를 탈취해가기 바빴무렵, 길림성에서 태어난 韓樂然(1898~1947)은 1945년부터 실크로드의 벽화모사를 시작하였다. 1946년에는 키질석굴을 조사하여 석굴마다 편호(이 번호는 지금도 통용됨)하여 75개를 확인하였고, 키질에서의 벽화모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20번의 전시회를 가졌다. 실크로드의 민속장면을

최초로 작품화 시킨 그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다.⁷⁾

Ⅲ. 壁畫에 나타난 服飾

4~5세기 실크로드의 각지에서는 대규모의 불교예술 창출이 이루어 졌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에서 석굴사원(Cave temple)의 建造가 시작되었다.

인도의 아잔타(굽타期)나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에서 시작된 석굴개착의 유행은 서역을 거쳐 중국에 영향을 미친다. 바미안의 석굴은 벽화의 剝落이 심하지만 38m 大佛의 옆에 寶冠을 쓴 공양인상이 있다. 寶冠은 초생달 위에 球形을 얹고 좌우에 리본이 나부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왕의 寶冠은 쿠산朝에는 보이지 않고 4세기가 되어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西域에서는 쿠차 주변의 석굴이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키질千佛洞 등의 석굴은 현존하는 벽화 등으로 부터 5세기중엽 이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여기에 최초로 석굴이 개착되었던 것은 아마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⁸⁾

쿠차의 키질·쿰트라·키질가하의 石窟에 그려진 壁畫 중에서 供養人의 服飾을 중심으로 龜茲國의 服飾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⁹⁾

6) 平凡社(1986), 前掲書, p.266.

7) 권영필(1993), 「韓樂然遺作展」, KBS 문화사업단, pp.7~10.

8) 長澤和俊, 岡丙勳(譯)(1991), 「東西文化의 交流」, (서울:民族文化社), p.198.

9) 出典

A: 韓翹 朱英英, 「龜茲石窟」, (烏魯木齊:新疆大學出版社), 1990.

B: 「キジル石窟」一, (東京:平凡社), 1991; 「キジル石窟」二, (東京:平凡社), 1984.

「キジル石窟」三, (東京:平凡社), 1992; 「쿰트라石窟」, (東京:平凡社), 1991.

C: 「中國美術全集, 16:新疆石窟」, (北京:文物出版社), 1989.

D: 閻文儒, “新疆天山以南의石窟” 「文物」, 1962年 7·8期(141·142).

E: 宋曉明, “克孫爾石窟” 「文物天地」, 1987年 4期.

F: 袁廷鶴, “從庫體吐拉千佛洞看龜茲壁畫의演變” 「文物天地」, 1988年 3期.

G: 1993. 7. 8. ~8. 5. 실크로드탐사.

H: 「실크로드美術展」, (서울:국립중앙박물관), 1991.

I: 陝非復, 「中國古代少數民族美術」, (北京:人民美術出版社), 1991.

1. 키질(克孜爾)石窟의 服飾

“克孜爾”란 위구르語 “紅”에 해당한다.¹⁰⁾

〈圖 2〉는 키질石窟의 전경이며, 키질의 벽화는 크게 2기로 나누어 진다. 르· 록이나 그린베델의 물색선을 검토했던 발트슈미트는 간단라적 요소를 지닌 오래된 양식은 500~600년경으로 하고, 새로운 양식은 600~650년경으로 하였다. 前者는 정방형의 평면을 지니며 書題는 本生圖, 佛傳圖가 많으며, 윤곽을 부드러운 선으로 그리고 색의 濃淡으로 그림자를 덧붙여 동그스름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색채는 白, 薄桃, 黃, 褐, 黑褐色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터키石的 白綠色을 콘트라스트로 사용한다. 後者는 窟이 장방형이며 윤곽이 딱딱한 선으로 정확히 그려져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



(圖 2) 키질石窟의 全景(2~17窟)
「キジル石窟」, 一.

채가 이용되고 특히 라피스라즈리(紺青)色の 사용이 현저하다.¹¹⁾

총 74개의石窟은 V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III

〈表 1〉 키질(克孜爾)石窟의 服飾

時代	石窟	壁畫·人物	修髮樣式·頭衣	衣(上衣, 下衣, 表衣, 足衣)	帶·裝身具	備考(出典)
I 期	17窟	燈明王本生	斷髮 尖頂帽	翻領窄袖長袍(黑色1), 盤領窄袖長袍(粉綠色1), 袴, 赤裸短衣, 裙	주머니	소승불교 (C,G,I)
	69窟	1) 主室前壁의 供養人 ① 男 ② 女 2) 立佛左下의 供養人 3) 主室右壁의 供養人	冠 金冠	垂領窄袖長袍, 長靴 盤領襦, 前開形半袖衣, 裙 半裸, 毛皮, 皮裙 前開形長袍	腰帶, 短劍	(A,C,D,E) 龜茲貴族의 모습 供花
II 期	14窟	馬堅龍王本生 1) 騎馬人 2) 1명 3) 1명	斷髮 斷髮, 圓頂帽 斷髮	翻領窄袖衣, 袴 翻領窄袖襦, 袴 翻領窄袖襦, 袴		(A,C)
	38窟	本生圖의 女子 세제자 불법보호왕	削髮	襦袴 翻領黑袍	큰 귀걸이 큰 귀걸이 寬帶	키질특징 (A,D,G,H)
	175窟	공양비구 女子供養人 2명	束髮 ·	毛衣 緊身衣, 背子, 褲裙		(B)

10) 岡文儒(1962), 上掲書, p.42.

11) 長澤和俊, 岡丙勳(譯)(1991), 前掲書, pp.204~205.

III期	8窟	1) 5佛	尖形帽			龜茲服裝 (A,G,D)
		2) 12佛	三角帽			
		3) 16帶劍者	斷髮	翻領長袍(花文裝飾) 盤領襦, 袴,	長劍, 短劍	
	104窟	1) 佛的身旁坐 2) 무차 供養人	尖頂圓形, 氈帽 披髮垂頂(斷髮)	翻領折襟窄袖長袍	腰帶	西域人 모습 龜茲服裝(A)
	179窟	供養人	頭巾帽	下衣, 연녹색 帔巾		(D,G)
	192窟 新1號	供養人	봉두난발 剪髮 錦巾包扎 (頭巾)	翻領窄袖長袍 翻領窄袖長袍, 鑲邊	腰帶 腰帶 寶劍(七首)	(A)
199窟	1) 國王 1명		翻領窄袖長袍, 袴, 半袖 大衣, 黑皮靴	腰帶, 手巾, 短劍, 短刀, 長劍(뒤)	깃, 앞섶, 도련의 連珠文(C)	
		2) 大臣 2명	斷髮	翻領窄袖長袍, 黑皮靴		
	205窟	1) 龜茲國王 2) 王妃 3) 兵吏	斷髮 高帽	翻領袍, 窄袖襦, 長靴 翻領窄袖襦, 半袖衣, 寬 裙 盤領襦, 袴, 長靴, 갑옷 (翻領窄袖長袍)	腰帶 劍	(C,D,G) (I)
IV期	224窟	在俗信者				袖口, 깃에 장식선 (C)
		1) 男子 3명	斷髮	翻領窄袖長袍(2) 垂領窄袖長袍(1) 翻領窄袖上衣		
		2) 女子 2명	斷髮과 리본			
	67窟	供養人		아랫자락이 둥근형		공작꼬리장식 (G,D)
	76窟	1) 女子		半袖盤領袍 綠色短袖袂身衣 盤領襦, 盤領袍	長帶	(C)
2) 男子						
	81窟	스타나太子本生 의 騎馬人	터번, 머리띠	褐色窄袖對襟長袍, 窄袴		(B,C)
V期	189窟	供養人 3명		翻領窄袖長袍, 靴 (사방격자문)	腰帶 寶劍(七首)	깃, 섶에 花文 (A)

期和 IV 期에 가장 많은 석굴이 만들어졌다.¹²⁾ 키질石窟의 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表 1).

I 期の 17窟의 燈明正本生圖의 한사람은 보족한 모자를 쓰고 둥근깃의 前開形袍와 바지를 입고 있으며 한사람은 翻領窄袖長袍와 袴를 입고 長靴를 신었다(圖 3). 69窟에서 보면 男子는 冠을 쓰고

垂領窄袖長袍를 입고 腰帶를 띠며 短劍을 찬 龜茲貴族의 모습이다. 이 短劍은 新羅의 寶劍과 깊은 관계가 있다. 女子는 金冠을 쓰고 盤領襦, 前開形半袖衣와 袴를 입고 있다(圖 4).

II 期の 14窟에는 斷髮에 圓頂帽를 쓰고 翻領窄袖長袍를 입은 남자가 보인다(圖 5).

38窟은 襦袴를 입고 큰 귀걸이를 한 세제자의

12) 閻文儒(1962), 前掲書, p.43.



(圖 3) 키질 17窟의 燈明王本生
「龜茲壁畫線描集」, P.7.



(圖 4) 키질 69窟의 공양인
「龜茲壁畫線描集」, P.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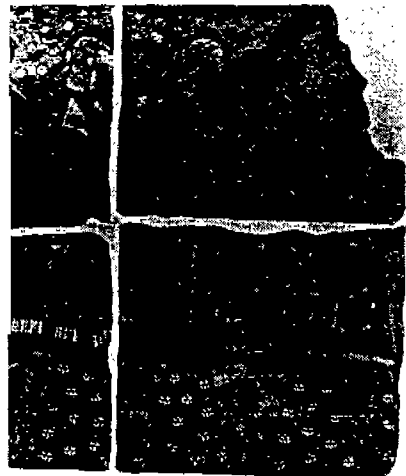
(圖 5) 키질 14窟의 馬堅龍王本生
「キジル石窟」, 一.

모습이다. 175窟의 공양비구는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毛織으로 된 옷을 입고 있다. 女子供養人 2명은 束髮로 묶고 緊身衣와 背子, 裙을 입었다.



(圖 6) 키질 8窟의 16帶劍者
Altbuddhistische Kultstätten
In Chinesisch Turkistan, P.58.

Ⅲ期の 8窟은 斷髮에 翻領長袍, 盤領襦, 袴를 입고 長劍과 短劍을 찬 16帶劍者의 龜茲服裝을 볼 수 있다(圖 6). 104窟과 192窟의 공양인도 斷髮에 翻領窄袖長袍를 입고 腰帶를 하였다. 新1號의 공양자는 錦巾으로 머리를 두르고 腰帶에 寶劍과 匕首를 매단 것이 특징이다. 199窟의 國王과 大臣은 翻領長袍와 上衣, 바지를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短劍과 手巾을 매달았다. 깃과 앞섶, 도련에



(圖 7) 키질 199窟의 國王과 大臣
「中國美術全集, 16: 新疆石窟」, P.71.

는 連珠文 장식을 하였다. 國王은 반소매이며 머리부분은 훼손되어 있으나, 斷髮은 아니다(圖 7). 205窟의 王은 斷髮에 翻領袍, 窄袖襦를 입고 長靴을 신고 腰帶를 하였으며, 王妃는 翻領窄袖, 半袖衣, 裙을 입고, 兵吏는 整領襦, 袴, 翻領窄袖인 갑옷을 입고 長靴을 신고 劍을 찼다. 224窟의 焚棺圖在俗信者는 슬픈 마음을 그리고 있는 壁畫로 上半身만 볼 수 있다. 壁畫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마를 찢고 머리를 자르며 가슴을 치는 등 비통한 마음이 표현 되어있다. 上衣는 窄袖翻領이 많다(圖 8).



(圖 8) 키질 224窟 焚棺圖의 信者 「キジル石窟」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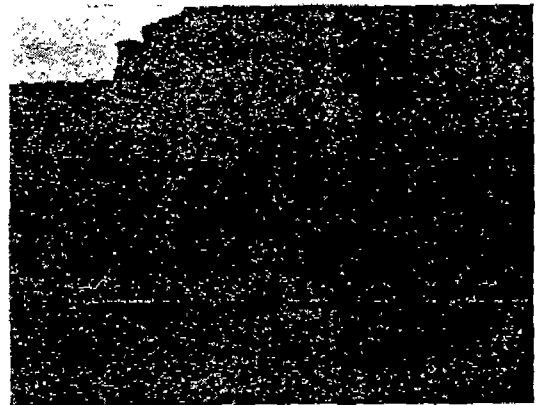
(圖 9) 키질 81窟의 스타나 太子 「キジル石窟」二.

Ⅳ期の 81窟의 騎馬人은 터번을 두르고 머리띠를 하였으며, 褐色의 窄袖長袍에 窄袴를 입었는데 對襟형식이다(圖 9).

2. 쿰트라(庫木吐拉)石窟의 服飾

위구르어로 “庫木”은 “沙”이고, “土拉”은 “烽火臺”로 “사막위의 봉화대”라는 뜻이다.

현재 위치는 동경 82°41' 북위 41°41'이다. 石窟群이 있는 峽谷에서 남쪽으로 약 3km 되는 곳에 “쿰트라”라고 하는 村落의 이름을 따서 石窟의 명칭이 붙여졌다(圖 10).



(圖 10) 쿰트라의 南區石窟部 「クムトラ石窟」

쿰트라石窟은 龜茲石窟藝術 중에서 中原예술을 최고로 접근시킨 것이다. 주요 石窟은 72개이며 그 중 31개窟에 비교적 정리가 된 壁畫가 있으며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³⁾

年代는 5~8세기 중엽까지로 보며 대부분이 6~7세기 전후의 것이다.¹⁴⁾

쿰트라 壁畫에 그려진 공양인의 族種과 壁畫의 소재 및 畫風의 주요 民族의 系統이 일치하고 있다. 혼합양식인 경우 仙堂窟 壁畫의 중심이 되는

13) 岡文儒(1962), 前掲書, pp.51~53.

14) 新疆ウ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編(1991), 「中國石窟: 쿰트라石窟」, (東京: 平凡社), p.211.

〈表 2〉 쿼트라(庫木吐拉)石窟의 服飾

時代	石窟	壁畫·人物	修髮樣式·頭衣	衣(上衣, 下衣, 表衣, 足衣)	帶·裝身具	備考(出典)
I 期	46窟	供養人		翻領長袍(黑色)	腰帶, 寶劍	중후한 모직: 쿠차의 불교벽화(A)
II 期	34窟	武士	寶蓋 圓形帽, 寶蓋 卷髮	盤領左衽長袍, 長靴 垂領長袍, 赤裸	腰帶, 寶劍 腰帶, 佩飾	花紋 (A)
III 期	12窟	1) 男子供養人 2) 여래상	幞頭 高髻, 花鬟冠	襜衫 大衣, 帔巾	腰帶, 長劍 細環珞	위구르樣式 漢風(A, B, F)
	16窟	漢의 供養人		紅色長袍		唐의 官夷 完전한 漢風(B, F)
	23窟	右 7명 左 6명	斷髮	翻領窄袖長袍	腰帶 長劍	龜茲人 (B)
	38窟	男子 女子	長髮, 高冠, 紐 束髮, 髻	廣袖長袍	腰帶, 巾布袋 小型皮袋	위구르人 (B)
	43窟	信都		短衣, 短褲, 赤着雙足		쿠차人服裝(A)
	46窟	供養人		翻領窄袖長袍 翻領短衣, 褲	腰帶, 長劍	龜茲 전형적인 생 활모습(B)
	46窟 付1號	女子供養人 4명	꼭대기에 묶음 빗 을 꽃음	垂領廣袍	帶	위구르樣式과 漢 風服裝(B)
	79窟	1) 男子				위구르人(A, B)
		① 첫번째	뒤로 늘인머리, 高冠	翻領長袍, 長靴	腰帶	貴龜紋
		② 세번째			(螺鈿五事)	小蓮花紋
		2) 女子				(A, B)
	① 韻思公主	束髮, 紅色비단띠	원 外衣(등근육 모양), 翻領長袍, 紅內衣, 長裙	耳環	魚紋	
	② 新婦署頡公主	束髮, 櫛	원 外衣(등근육 모양), 長袍, 紅內衣, 長裙		蓮花紋	
	3) 大人 6명		袈裟(4), 黑靴, 위구르 服裝(2)		(A, B)	
	4) 童子像		紅袍		위구르服裝	

제재나 畫風의 民族系統은 그 공양인이 속하는 民族의 系統이다.¹⁵⁾ 壁畫에 그려진 공양인의 服飾을 통하여 族種을 알 수 있다.

쿼트라石窟의 벽화에 그려진 공양인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表 2).

I 期の 46窟은 전형적인 쿠차의 불교벽화로 쿠차인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翻領長袍를 입고 요대에 寶劍을 찬 공양인이 그려 있다. 袍는 중후한 느낌의 검은색 毛織이다.

II 期の 34窟에는 盤領左衽長袍를 입고 長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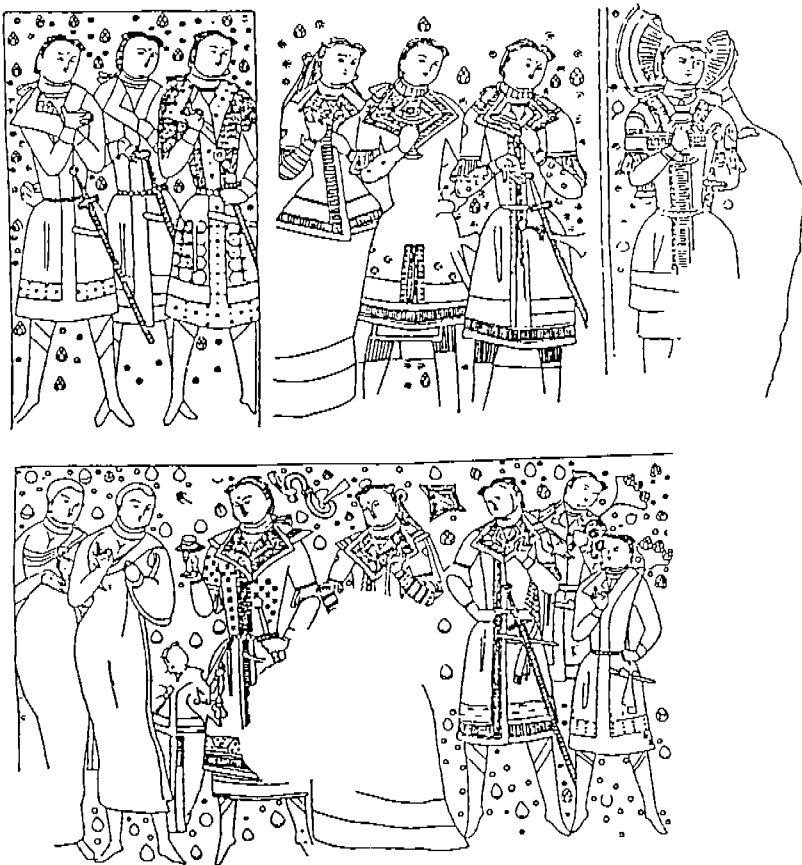
15) 上揭書, p.201.

신었으며 腰帶에 寶劍을 찬 사람과 圓形帽에 垂領 長袍, 腰帶를 한 사람이 있다.

Ⅲ期の 12窟의 남자 공양인은 양손에 香爐를 가지고, 幘頭에 襜衫을 입고 腰帶에 短刀, 長劍을 찌른다. 武士는 머리위에 雉尾를 꽂았는데 위구르風이고 여래의 복장은 高髻에 花鬘冠을 두르고 大衣와 帔巾, 細瓔珞은 唐代의 특징이다. 즉, 한 窟에 위구르風과 唐風이 같이 그려져 있다. 16窟의 공양

인은 홍색 長袍를 입은 唐의 관리로 완전한 中國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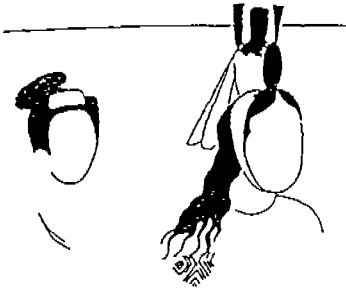
23窟의 공양인은 오른쪽에 7명, 왼쪽에 6명이 그려져 있다. 현재 모두 없어져 버렸으므로 그린 베델이 그린 線畫에서 보면 앞가름마의 斷髮에 선장식을 두른 翻領窄袖長袍와 바지를 입고 긴 長靴를 신었다. 腰帶를 매고 長劍을 찬 쿠차인의 모습이다(圖 11).



(圖 11) 쿨트라 23窟의 공양인
「クムトラ石窟」, P.200.

38窟의 供養人은 좌측에 두사람의 머리부분이 남아있는데, 앞에 그려진 것은 남자 공양인으로 갑순기리는 머리를 길게 늘이고 高冠을 쓰고 목있다. 뒤는 여자 공양인으로 머리를 위에 묶고 앞에

비녀를 꽂고 있다(圖 12-①). 主室前壁門 입구의 右側 남자 공양인은 머리를 어깨밑까지 길게 늘이고, 長衣를 땅에 끌리게 입었으며 소매는 넓은 廣袖이다. 腰帶에 긴 布袋, 小型의 皮袋, 刀子鞘, 劍



(圖 12-①) 쿼트라 38窟의 여자공양인
「쿼트라石窟」, P.200.



(圖 13) 쿼트라 46窟付1號의 여자공양인
「쿼트라石窟」, P.236.



(圖 12-②) 쿼트라 38窟의 남자공양인
「쿼트라石窟」, P.200.

鞬 및 작은 물건을 늘이고 있다(圖 12-②). 服裝에서 보면 이들은 위구르인이라고 생각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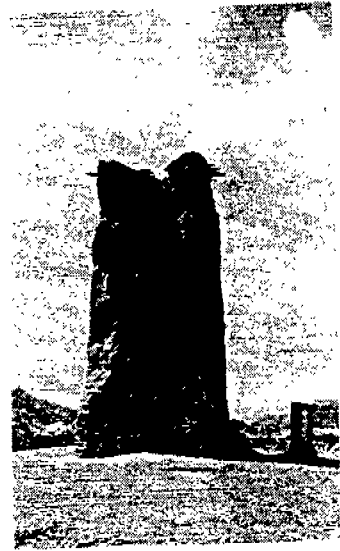
46窟의 공양인도 모두 전형적인 쿠차인의 모습이다. 46窟付1號에는 4명의 여자 공양인이 그려져 있다. 머리는 꼭대기까지 묶고 앞머리에 비녀를 옆으로 한개 꽂고 있는데, 이것은 79窟의 위구르 여자 공양인과 완전히 일치하며, 위구르樣式이라고 생각된다. 의복은 中國風의 垂領廣袍로 헐렁하고 앞에서 여며 띠를 매는 형식이다. 공양인의 의복은 명확하게 중국의 漢양식이므로 본 석굴이 형식적으로는 龜茲式이지만, 壁畫에 그려진 공양인의 服飾은 대부분 漢風이므로 漢樣式의 석굴로 볼 수 있다(圖 13).

75窟과 79窟에는 대표적인 위구르服裝이 묘사되어 있다. 79窟 벽화의 첫번째는 남자像인데 긴 머리를 어깨에 늘이고 高冠을 쓰고 翻領長袍를 입고 長靴를 신었으며, 둥근 얼굴에는 수염이 나 있다. 腰帶에는 并瓦, 雜囊, 袋, 繩 등의 작은 물건을 늘이고 있다. 두번째는 여자像으로 束髮에 비단띠나 비녀장식을 하고 紅色의 긴 리본을 하였다. 양손은 합장한 공양의 자세이다. 翻領의 長袍를 입고 안에는 둥근 깃의 上衣를 입었으며, 翻領의 깃에는 魚鱗狀의 문양이 나타나 있다. 漢字의 題記에 ‘額里思力公主’라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모습이 다. 나란히 위구르文字 1行을 기록 하고 있다. 세번째는 남자像으로 첫번째 남자와 같은 모습이다. 네번째는 여자像으로 머리카락을 올리고 비녀로 장식을 하였다. 합장한 손에 蓮華를 들고 있다. 長袍에는 團花文이 그려져 있고 漢字의 榜題에 ‘新婦額里公主’라고 있다. 옆에 위구르文字 1行이 기록 되어 있다. 4명의 공양자像 위쪽에는 옆으로 쓴 각종의 龜茲文字의 題字가 쓰여져 있다. 이처럼 같은 壁畫 위에 漢字, 위구르文字, 龜茲文字를 같이 쓰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圖 14).

16) 新疆ウ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編(1991), 前掲書, pp.199~200.



(圖 14) 쿼트라 79窟의 공양인
『クムトラ石窟』P.232.



(圖 15) 키질가하塔

3. 키질가하(克子喀拉·克孜爾朶哈) 石窟의 服飾

“克子”는 위구르어로 “姑娘”, “喀拉”는 “留住在
那里” 뜻으로 “처녀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지
금도 키질가하塔이 그대로 남아있다(圖 15).

46개窟 중에서 정리·완료된 것이 38개이며 그
중 11개의 窟에 壁畫가 남아있다. 壁畫가 남아있
는 窟을 Ⅳ期로 나누어 보면 Ⅰ·Ⅱ期の 16窟과
23窟은 키질의 Ⅳ期 47號와 같은 石窟樣式이다.

Ⅲ期는 11, 13, 14, 30窟로 4개이며, Ⅳ期는 3, 15,
21, 32, 46窟로 5개이다.¹⁷⁾ 키질가하石窟의 壁畫에
나타난 공양인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表
3).

〈表 3〉 키질가하(克子喀拉)石窟의 服飾

時代	石窟	壁畫·人物	修髮樣式·頭衣	衣(上衣, 下衣, 表衣, 足衣)	帶·裝身具	備考(出典)
Ⅱ期	16窟	供養人		左襟翻領袍, 窄袴, 短靴		(D, G)
Ⅲ期 (6~ 7C)	11窟	供養人 1) 좌측, 중간	斷髮	綠色翻領左襟長袍, 靴	腰帶, 佩劍 (短刀, 長劍)	무사차림 (A, D, G)
		2) 우측	斷髮	短袖翻領長袍	腰帶	
	14窟	1) 귀족 2) 시종 3) 여자	高髻後垂	窄袖翻領長袍, 半臂, 窄袴 窄袖盤領袍	腰帶 佩劍(寶劍)	— 領襟—黑襟 — 袖口—白襟 (A, D, G)
	30窟	供養人 7명	斷髮	翻領 窄袖長袍	腰帶 長劍(佩七首)	(A, D, G)

17) 關文儒(1962), 前掲書, pp.49~50.

Ⅱ期の16窟에는 左衽翻領袍, 窄袴, 短靴을 신었는데 袍의 앞자락이 갈라졌다.

Ⅲ期の11窟에는 무사 공양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斷髮에 綠色翻領左衽長袍의 披甲에 長靴을 신었고 短袖翻領長袍를 입기도 하였다. 腰帶도 하였으며 長劍과 短刀를 찬 전형적인 龜茲服飾이다(圖 16).



(圖 16) 키질가하 11窟의 武士
「文物」, 141·142. P.50.

14窟의 귀족은 窄袖翻領長袍와 半臂, 窄袴를 입고 腰帶를 하였는데 깃과 수구에는 幟을 두르고 있다. 시종은 窄袖盤領이며 寶劍을 찼다.

30窟은 같은 모습이나 허리에 長劍과 일곱가지를 늘이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키질가하의 공양인은 전형적인 龜茲服飾을 입었으며, 寶劍과 七首 등을 늘인 것이 특징적이다.

IV. 文獻에 나타난 服飾

文獻에 나타난 龜茲國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表 4).

1. 男子의 服飾

龜茲는 「晉書」, 「舊唐書」, 「唐書」, 「冊府元龜」에 剪髮, 斷髮이며, 王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드러내지 않도록 錦巾으로 머리를 감싼다. 金袍를 입고 金寶帶를 맨다. 풍속은 焉耆의 風俗과 大同小異하다고 「隋書」에 기록 되어있다.

〈表 4〉 龜茲國의 服飾

性	階級	修髮樣式·頭衣	衣(上衣, 下衣, 裘衣, 足衣)	帶·裝身具	織物	備考
男子	王	頭繫綵帶 垂之於後②, ④, ⑤ 不翦髮 錦蒙頂⑥, ⑩ 不翦髮 王以錦昌頂⑦	錦袍 ⑥, ⑦, ⑩ 黃衣 ⑧	金寶帶 ⑥, ⑩ 宝帶 ⑦, ⑧	細氈, 縹皮, 翟氈②, ③, ④, ⑩ 縹皮, 翟氈⑤ 錦, 氈⑨	婚姻, 喪禮, 風俗, 物産은 焉耆와 同一 ②, ③, ④, ⑩ 風俗은 焉耆와 同一 ⑤
	丈夫	翦髮垂頂 ① 翦髮垂與頂齊 ⑥, ⑩ 斷髮齊頂 ⑦ 斷髮巾帽 ⑨				
女子		翦髮垂頂 ① 翦髮垂與頂齊 ⑥, ⑩				
出典	① 「晉書」卷97, 列傳 第67, 西夷. ② 「魏書」卷102, 列傳 第90, 西域. ③ 「周書」卷50, 列傳 第42, 異域下. ④ 「北史」卷97, 列傳 第85, 西域. ⑤ 「隋書」卷83, 列傳 第48, 西域.		⑥ 「舊唐書」卷198, 列傳 第148, 西戎. ⑦ 「唐書」卷221上, 列傳 第146上, 西域上. ⑧ 「宋史」卷490, 外國傳 6, 龜茲傳. ⑨ 「大唐西域記」卷1, 屈支國條. ⑩ 「冊府元龜」卷960, 外信傳 土風2.			

「魏書」, 「周書」, 「北史」, 「舊唐書」, 「唐書」의 波斯條에는 “丈夫는 剪髮·祝髮이며 衣는 貫頭衫으로 巾帽를 입는다.”고 하였다. 男子의 剪髮風俗은 본래 이란 민족의 습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大唐西域記」 屈支國條에는 “斷髮에 巾帽를 쓰며 服飾은 錦, 氈, 즉 비단과 모직물로 만든다.”고 하였다. 氈은 「後漢書」 烏桓傳에 “婦人能刺韋作文綺, 織氈毼切經設” 卷 16. 氈毼의 注에 “毛布也, 所以「錦氈」就是指華美 彩色的 毛布.”라고 하므로 氈은 毛織物이다. 콧트라 46窟의 供養人이 입은 의복은 중후한 느낌을 주는 氈에 해당한다고 본다.

2. 女子의 服飾

「通典」에는 “焉耆의 婦人이 襦와 大袴를 입는다.”고 하였는데 焉耆와 龜茲의 風俗이 같다고 하였으므로 龜茲의 婦人도 襦와 大袴를 입었을 것이다. 修髮樣式은 「晉書」와 「舊唐書」에 “男女모두 剪髮이다.”고 하였으며 唐代에 역시 그러한 풍습을 답습하여 龜茲의 女子도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콧트라 23窟 壁畫에 나타나 있다.

V. 韓國服飾과의 關係

1. 龜茲服飾과 韓國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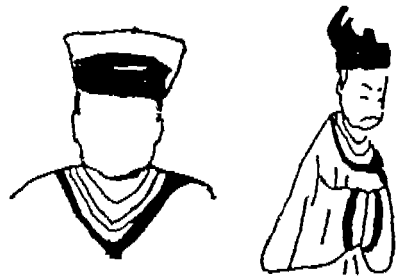
1) 신라의 剪髮과 쿠차의 剪髮은 이란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唐書」에 신라는 “粉黛하지 않고 美髮을 머리에 두르고 珠綵로 장식하였다. 남자는 剪髮로 머리를 잘라 팔고 黑巾을 썼다.”고 기록 되어있다.¹⁸⁾ 신라 남자의 剪髮(斷髮)은 고유한 우리의 修髮樣式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쿠차는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剪髮이다.

中國風에 의해 高髻로 묶고 위구르風에 의해 더욱 크고 화려해졌다. 尖頂帽와 頭巾을 쓰며 幞頭는 중국의 영향이후에 나타나는 점이 공통적이다.

2) 上衣는 貫頭式인 盤領이 많고 前開式인 翻領도 있다. 소매는 窄袖이며, 半袖衣는 우리나라의 半臂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고구려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에서 보면 袍안에 여러겹의 貫頭式인 盤領襦를 입고 있다. 盤領과 垂領을 여인 直領이 공존했을 것이다(圖 17-①, ②).



(圖 17-①) 안악 3호분의 주인공
「고구려 문화사」, P.281.



(圖 17-②) 덕흥리고분의 주인공과 태수

貫頭衣 형식의 盤領은 북방기마민족의 것에도 있고 서쪽의 비잔틴에도 있다. 가축과 함께 水草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이 바람과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 앞을 가린 것으로 圓領이라고 하며, 평상시에는 깃을 열어 체친 翻領으로 입었을 것이다.¹⁹⁾ 盤領은 圓領처럼 둥근 형태지만 목을 깊게 파지 않은 형태로 貫頭式이 많다.

圓領은 胡服으로 알타이 服飾이다. 이는 西域과

18) 「唐書」 卷20 列傳 第145

不粉黛 率美髮以線首 以珠綵飾之 男子剪髮 鬻以黑巾 市皆婦女販賣

19) 松本每子(1985), “盤領과 垂領” 「世界の民族版」, 2, (大阪: 關西衣生活研究會), p.50; “東西交流の衿”, P.76.

蒙古의 중간에서 발생한 鮮卑族의 옷일 가능성이 있다. A.D. 3세기의 敦煌壁畫에는 앞이 절개된 圓領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²⁰⁾

垂領은 중국의 深衣를 기본으로 한 농경민족의 것이다. 衿襟이나 交襟으로 입으며 直領은 垂領을 交襟으로 입은 것으로, 여미는 방향에 의해 左襟과 右襟이 있고, 모양은 깊게 파진 V자형이다.

쿠차에서 보이는 貫頭衣 형식의 盤領은 헬레니즘의 영향이며 翻領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盤領과 翻領, 垂領의 공존은 동서문화의 교류를 보여 주는 것이다.

3) 下衣는 窄袴와 裙을 입었는데 고구려에도 細袴와 裙이 있다.

4) 表衣는 窄袖長袍로 무릎아래의 길이이다. 깃은 垂領과 翻領으로 翻領이 많다. 초기에는 左襟 翻領袍가 보이나, 후에는 中國의 영향에 의해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가 넓은 垂領廣袍로 변한다. 우리나라의 袍는 翻領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뿐 깃, 도련, 수구의 선장식과 袍의 길이 등이 공통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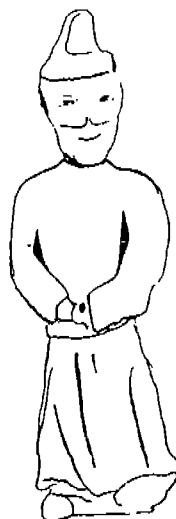
5) 足衣는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長靴를 남녀 모두 신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6) 帶는 腰帶를 매고 劍 등의 佩飾을 차며, 신라 계림로 14호분의 寶劍은 (5~6세기 전반) 키질의 단검(6세기 후반~7세기)보다 시대가 앞선 비신라계 유물로 중앙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허리에 劍을 차는 풍습은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압벽화의 사신에서 볼 수 있으며 佩飾도 신라와 같다.

2. 胡人像의 服飾

경주 황성동 고분의 胡人像은 뾰족한 胡帽를 쓰고 목위까지 오는 窄袖盤領袍를 입고 있으며 눈이 깊고 크다(圖 18-①). 掛陵의 武人像은 큰 눈, 어깨까지 오는 곱슬머리, 이마에 두른 머리띠, 매부

리코, 곱슬거리는 턱수염에서 이란인임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이마에 두른 머리띠는 고대 사산조 이란의 귀족들의 징표이다(圖 18-②). 掛陵의 피장자는 신라 38대 元聖王(제위 785-798年)으로 추정되므로 武人像은 8세기말 또는 9세기초에 세워졌을 것이다.



(圖 18-①) 隍城洞의 胡人像
「경주와 실�크로드」, P.23.



(圖 18-②) 掛陵의 武人像
「경주와 실�크로드」,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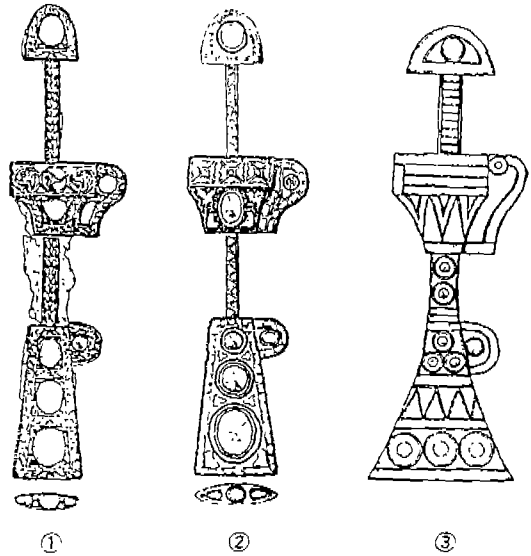
20) 金東旭(1986) “圓領의 發生” 「亞細亞服飾研究」, 6, p.67.

고 신라시대의 西方系文化에는 주로 스키타이족과 헬레니즘적 요소가 강한 반면, 통일신라에 접어들면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문화가 보다 짙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8세기 전반기는 통일신라에 있어서 최극성기일뿐만 아니라 唐도 이란문화 등 외래문물 흡수에 심취해 있던 황금기에 속하던 시기이다.²¹⁾

3. 신라의 寶劍과 金銅履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金製嵌玉黃金寶劍은 奇蹟의 第69窟의 功安인의 좌측허리에 차고 있는 短劍과 매우 비슷하다. 기본적인 장식 기법은 금으로 구획되고 그 내부에 보석을 넣은 것으로 바깥부분은 金粒으로 세공을 하고, 안쪽에는 S자형의 파상문, 파형문, 초엽문이 배치 되어있다. 비 신라계 유물로 당시 신라와 중앙 아시아와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圖 19-①). 奇蹟의 短劍은 崑트라 석굴사원 第19窟 벽화의 무인상에서도 볼 수 있다. 奇蹟 第69窟의 연대는 6세기 후반이라고 하며, 崑트라 第19窟은 르·콕에 의하면 7세기라고 한다. 신라의 寶劍은 5~6세기 전반의 것으로 여겨지며, 奇蹟의 보검은 신라의 것보다 끝부분이 더 넓게 된 점이 다르다(圖 19-②). 또한 카자흐스탄의 보로워에에서 발견된 短劍飾鍊에서도 유사성이 확인된다(圖 19-③).

황금 보검과 함께 중앙 아시아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또 다른 유물은 금동신발이다. 경주 노서리 적석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얇은 동판에 도금한 것으로, 신바닥 측면에는 이중으로 짜여진 승문과 단선승문을 배치하고 그 중간을 화염문으로 매우고 있다. 안에는 거북 등의 문양이 있고 그 안에 화문, 쌍조문, 동물문, 귀면문 등이 있다. 이런



(圖 19-①) 신라의 寶劍
(圖 19-②) 奇蹟의 短劍
(圖 19-③) 보로워에의 短劍
『古文化談叢』, 7. pp.254~255.

문양으로 보아 漢에서 六朝에 걸친 실�크로드상의 문화교류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중요한 과제는 계림로의 寶劍을 포함한 유리 용기 등의 서방계 문물의 전파 루트이다. 그 루트로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에 왕래하고 있던 소그드상인에 의한 경로와 북방의 스태프루트를 통하여 한국에 직접 도달하는 경로가 고려되고 있다.²²⁾

4. 興德王 服飾禁制(A.D. 834年)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條에는 “興德王 9年 풍속이 점점 각박하고 백성들이 다투어서 사치, 호화를 일삼고 다만 外來品の 珍奇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土產品을 싫어하니……”라고 服飾禁制를 내리고 있다. 瑟瑟細, 毳毼, 毳氍 등의 중앙

21) 權學弼(1993), “慶州掛陵人物石像再考” 『美術資料』, 50.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p.66~67.

22) 六澤和光・馬目順一(1980), “慶州鷄林路14號墓出土의 嵌玉金裝短劍をめぐる 諸問題”. 『古文化談叢』, 7, (北九州: 九州古文化研究會), pp.258~263.

아시아産 물품에 대한 禁制를 통하여, 그 당시 이런 물품이 매우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瑟瑟은 新舊唐書 高仙芝傳에 보이는 石國의 所産인 碧玉인데, Laufer氏의 說과 같이 이란系의 單語 Se-Se의 寫音으로 에메랄드로 추측되기도 한다. 瑟瑟鈿은 西域産의 璧玉을 단 金花飾을 말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六頭品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麀皮와 毳毼의 사용을 禁하였다. 毳毼은 毼毼인 것 같고 毳毼은 毼毼이다. 양모를 주성분으로 하여 雜毛를 섞어 짠 문양있는 페르시아의 직물로 그 용도는 榻에 가는 깔개이다. 현재 正倉院에 보관중인 色毼이나 花毼은 신라 교역품의 하나로 추정 되고있다.

VI. 結 言

쿠차는 西域北道의 대표국으로 658년 이래 唐의 安西都護府가 설치되었으며, 小乘佛敎의 발달로 이란풍의 벽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8세기에는 고구려인 高仙芝장군이 활약했던 곳이고, 韓樂然(1898~1947)은 1946년에 키질석굴을 조사하여 석굴마다 편호(이 번호는 지금도 통용됨)하여 75개를 확인하였고, 키질에서의 벽화조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깊은 나라이다.

1. 5~8세기의 쿠차의 키질·쿰트라·키질가하石窟의 壁畫에 그려진 공양인의 복식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질과 키질가하의 벽화에 나타난 복식은 전형적인 쿠차의 복장으로 斷髮에 翻領窄袖長袍와 목이 좁은 바지를 입고 허리에 띠를 매고 劍을 차고 있다. 페르시아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쿰트라 벽화는 6세기까지는 쿠차의 복식이지만 7세기 이후 修髮樣式은 위구르樣式, 의복은 漢樣式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가 넓어지는 혼합양상을 보이다가 점차로 위구르樣式으로 변하였다.

쿠차에서 보이는 貫頭衣 형식의 盤領은 헬레니즘의 영향이며, 翻領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盤領과 翻領, 垂領의 공존은 동서문화의 교류를 보여 주는 것이다.

2. 文獻에 나타난 服飾은 남녀 모두 剪髮이며 왕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자는 巾帽을 쓰며 모직물이나 錦으로 옷을 만든다고 하였다. 벽화에 그려진 袍의 가장자리를 두른 장식은 화려한 錦을 댄 것이다. 앞으로 新羅錦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韓國服飾과의 관계

1) 龜茲服飾과 韓國服飾

쿠차는 剪髮(斷髮)에 尖頂帽과 頭巾을 쓰며, 上衣는 貫頭式인 盤領이 많고 前開式인 翻領도 있으며, 소매는 窄袖이다. 下衣는 窄袴와 裙을 입었으며 帔巾을 두른다. 表衣는 翻領窄袖長袍이며 선장식이 되어있다. 가죽으로 만든 長靴를 신고 腰帶를 매며 劍을 차거나 佩飾을 늘린다. 초기에는 이란의 영향이 강하였으나, 중국의 영향으로 高髻와 高冠, 幘頭의 등장,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垂領 廣袍로 변한다. 위구르風에 의해 쿰트라 壁畫에는 더욱 크고 화려한 머리장식을 한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의 剪髮과 쿠차의 剪髮은 이란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幘頭, 넓은 소매는 중국의 영향 이후에 나타나는 점이 공통적이다. 쿠차의 半袖衣는 신라의 半臂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고구려 벽화에서 보면 袍안에 여러겹의 貫頭式인 盤領襦를 입고 있어 盤領과 垂領을 여민 直領이 공존했을 것이다. 下衣는 細袴와 裙이 있다. 表衣는 窄袖長袍이며 깃, 도련, 수구의 선장식과 무릎아래까지 오는 길이 등이 공통점이다. 우리나라의 袍는 翻領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뿐이다. 長靴를 신고, 腰帶를 매고 劍 등의 佩飾을 찬다.

2) 胡人像의 服飾

胡人像은 뾰족한 모자를 쓰고 窄袖盤領의 袍와 바지를 입고 있다. 掛陵의 武人像은 곱슬거리는 斷髮에 머리띠를 두른 모습, 큰 눈과 턱수염 등에서 이란의 귀족임을 알 수 있다

3) 신라의 寶劍과 金銅履

신라의 寶劍은 키질의 短劍보다 시대가 앞선 5~6세기 유물로 서투르키스탄이나 초원지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金銅履의 신바닥 측면에 있는 거북문, 쌍조문, 귀면문 등의 문양에서 실크로드의 문화교류가 신라에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眞德王 9年(A.D. 834)의 服飾禁制는 瑟瑟細, 毳毼, 毳氍 등의 중앙아시아産 물품에 대한 禁制로, 당시 이런 물품이 매우 선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에서 출토된 新羅梳는 머리에 꽂는 장식빗으로 瑟瑟細에 해당된다.

쿠차의 복식을 연구함으로써 5~8세기의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보다 자세히 밝혀려고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西域南道の 服飾을 연구하여 보충해 나가고자 한다.

參考文獻

- 국립중앙박물관(1991). 「실크로드 미술전」.
- 權寧弼(1987). 「中央아시아美術」. 서울: 三和出版社.
- 權寧弼(1993). “慶州掛陵人物石像再考” 「美術資料」, 50.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金東旭(1986). “團領의 發生” 「亞細亞服飾研究」, 6.
- 나가사와 가즈도시, 이재성(譯)(1990).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서울: 민족사.
- 方雄正(1989). 「新羅의 土俑」. 서울: 통천문화사.
- 사회과학출판사(1988). 「고구려 문화사」. 서울

: 논장.

- 이난영(1991). 「경주와 실크로드」.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 KBS문화사업단(1993) 「韓樂然遺作展」.
- 長澤和俊, 関丙勳(譯)(1991). 「東西文化의 交流」. 서울: 民族文化社.
- 六澤和光·馬目順一(1980). “慶州鷄林路14號墓出土의 嵌玉金裝短劍をめぐる諸問題” 「古文化談叢」, 7. 北九州: 九州古文化研究會.
- 松本敏子(1979). 「世界の民族服」, 1. 大阪: 關西衣生活研究會.
- 松本敏子(1985). 「世界の民族服」, 2. 大阪: 關西衣生活研究會.
- 「キジル石窟」, 一 (1991). 東京: 平凡社.
- 「キジル石窟」, 二 (1984). 東京: 平凡社.
- 「キジル石窟」, 三 (1992). 東京: 平凡社.
- 「クムトラ石窟」(1991). 東京: 平凡社.
- 加藤九祚(1980).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畫」. 東京: 文化出版局.
- 加藤九祚·長澤和俊·護雅夫(1983). 「シルクロード」. 東京: 筑摩書房.
- 杉本正年(1984).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 中華人民共和國(1973). 「シルクロード文物展」. 東京: 讀賣新聞社.
- 中國新疆出土文物(1986). 「シルクロード展」. 東京: 旭通信社.
- 平凡社編(1982). 「アジア歴史事典」, 1~10. 東京: 平凡社.
- 玄奘, 水谷眞成(譯)(1984). 「大唐西域記」, 上·下. 東京: 平凡社.
- 閻文儒. “新疆天山以南의 石窟” 「文物」, 1962年 7·8期(141·142).
- 潘丁丁外2人(1985) 「龜茲壁畫線描集」.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宋曉明. “克孫爾石窟” 「文物天地」, 1987年 4期.
- 新疆大學圖書館編(1987). 「龜茲史料」.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

- 袁廷鶴. “從庫體吐拉千佛洞看龜茲壁畫的演變”
「文物天地」, 1988年 3期.
- 沈從文(1988).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南
天書局有限公司.
- 「新疆風物志」(1988). 烏魯木齊：人民出版社.
- 「中國美術全集, 16：新疆石窟」(1989). 北京：
文物出版社.
- 韓翹·朱英英(1990). 「龜茲石窟」.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
- 陝非復(1991). 「中國古代少數民族美術」.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 劉錫淦·陳良偉(1992). 「龜茲古國史」. 烏魯木
齊：新疆大學出版社.
- 鄒卓然·文松柏(1993). 「庫車-龜茲佛的樂都風
情」. 烏魯木齊：新疆大學出版社.
- Grünwedel Albert(1912). Altbuddhistische
Kultstätten In Chinesisch Turkistan. Berlin.

ABSTRACT

The Costume of Kucha

Young Moon, Kim

Dep.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 between kucha and Korea by comparing costu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uring 5~8th century, wall paintings of Kizil and Kizilkargha showed traditional costume such as cutting hair, lapel collar and fitting sleeve coat, pants, boots, belts and knife. Kumtura were also in 6th, but under the influce of China and Hoehol(回鶻) after 7th.

Second, Men and women cutting hair except king, they put on cone shaped hat and Kun(巾), clothing were made of felt and kun(綿).

Third, It was influenced by Iran that cutting hair in Silla(新羅) and Kucha.

In Silla, round neckline and V neckline were existed except lapel collar.

Jeweled knife of Silla and Kucha, pattern of kumdonglee(金銅履) showed cultural exchange of centural Asia and Korea along the Silk Rood.

It is conscious that Silla preferred centural asia of texture and jewels by prohibition of costume (A.D. 834).